

<既 도입사항>

1.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

-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선순위(국민)·후순위(재정·자펀드운용사) 투자자로 구분된 손익차등형 펀드로서, 개별 자펀드에서 손실 발생시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우선 부담
- 자펀드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%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
 - 1%를 초과하여 출자*할 경우,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
 - * 자펀드 운용사별 후순위 출자 현황: 디에스 2%, 미래에셋 3%, 라이프 2.4%, 마이다스에셋 1.5%, 타임폴리오 1.6%, 한국투자밸류 5%, 더제이 2.5%, 수성 5%, 오라이언 1%, KB 4%

2. 성과보수 지급

- 펀드 만기시 자펀드별로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 지급
 - * 기준수익은 펀드 만기인 5년간 누적수익률 30%를 기준으로 함
 - 기준수익까지는 선순위(국민) → 후순위(재정·운용사) 순으로 배분(국민우대)
 - 기준수익 초과수익의 12%를 운용사에 지급(책임운용·인센티브)
 - * 초과수익 안분 비율은 "선순위 6 : 후순위 4" ⇒ 후순위 내 안분비율은 "재정 7 : 운용사 3"

◇ 개별 자펀드 수익률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수익은 국민 60%, 재정 28% (후순위비율×재정비율=0.4×0.7), **운용사 12%**(후순위비율×운용사비율=0.4×0.3) 배정

※ 출자자별 출자금액비중(자펀드운용사가 1% 출자시): 국민 82.5%, 재정 16.5%, 자펀드운용사 1%

【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 손익배분 방식(자펀드별)】

구 분	배분 순서
이익 발생시	○ 선순위 원금 →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후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초과수익 안분 (선순위 6 : 후순위 4) [※] * 기준수익 : 5년 누적 수익률 30% ** 순위 내 안분 비율: (선순위) 출자비율, (후순위) 재정 7 : 운용사 3
손실 발생시	○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원금

- (정책취지를 반영한 추가보수 지급)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술특례 상장사에 대해 ①신규자금을 40% 이상 공급하거나 ②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%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 추가 성과보수*를 지급

* 초과수익 분배시 재정과 운용사 간 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지급

- 인센티브 기준 충족시 초과수익에 대한 운용사의 배정분은 12%(추가지급 전)에서 16% ~ 20% 까지 상승

【국민참여성장펀드 후순위 내 손익배분】

구 분	조정 전	조정 후	초과수익에 대한 운용사 배정분
① 신주투자 40% 이상*달성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16% (0.4×0.4)
② 지방투자 40% 이상**달성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16% (0.4×0.4)
③ 신주투자 & 지방투자 40% 이상 달성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5 : 운용사 5	20% (0.4×0.5)

* ① 신규자금 투자 : 주목적투자 중 신규자금 투자 30% 의무 대비 10% 초과 달성

② 국민성장펀드 전체의 지방투자 기준(40%) 적용

3. 운용계약 합리화

-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 투자 (자펀드 총자산의 40% 이하)를 허용

- 주목적투자에서도 상장주식 투자를 최대 30% 허용*

* '21년 뉴딜참여펀드 경우, 상장주식 투자는 주목적, 비주목적투자를 합하여 최대 20% 허용

4. 코스닥벤처펀드 활용

-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*도 자펀드로 허용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도모

* [코스닥벤처펀드 요건]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(벤처 해제 7년 이내)에 50% 이상 & 벤처기업 신주에 15% 이상 투자

※ 금번에 선정된 10개 자펀드 중 3곳(타임폴리오, 더제이, 수성)이 코스닥벤처펀드로 지원

5. 성과평가 및 운용성과 모니터링

- 자펀드별 월간 및 분기별 운용보고*를 통해 운용성과, 주목적 투자 실적, 운용지침 준수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

* 보고대상: 공모펀드 운용사,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

- 운용성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수시 보고
 - 투자운용전략, 핵심운용인력 등에 펀드 운용 관련 중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

<추가 인센티브 방안>

1. 우수 실적 자펀드 운용사 우대

- (우수 운용사 선정) 재정모펀드 운용사(한국성장금융)가 매년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*를 선정·시상하여 경쟁 유도 및 신인도 제고 기회 제공

* 수익률, 주목적 투자분야 집행 실적 등을 평가

- (후속 국민참여성장펀드 관련 우대) 국민참여성장펀드 후속 사업 추진시 우수 운용사* 트랙을 신설하여 자펀드 선정 시 우대**

* (예) 전년도 수익률이 벤치마크(코스닥, 코스피 수익률 등을 적용하여 결정)를 상회하는 운용사 중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운용사 대상

** (예) 3년간 누적수익률 우수한 운용사에 서류평가 면제 후 제안(PT) 심사 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위탁운용사 선정 기회 우선 부여

- (他 정책성 펀드 관련 우대)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정책성펀드 사업에 우수 운용사가 지원 시 우대

- 국민참여성장펀드와 유사성이 있는 분야(예: 코스닥리그)에 '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 경험 항목'을 신설하여 지원시 우대 (예: 서류심사시 가점 부여)

- 펀드 설정 2년 이내에 비상장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(30% 신규자금 공급)을 1.2배 초과달성(36%) 시 우대 (예: 서류심사시 가점 부여)

2. 운용성과 공시 확대

□ 펀드 설정 후 3개월(기준일)마다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교부*(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)되는 '자산운용보고서'에 자펀드별 투자현황 및 성과를 반영

* 공모펀드 운용사, 펀드 판매사, 금융투자협회에도 공시

○ 의무 기재사항인 공모펀드 수익률, 자펀드 투자내역(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비중 등) 외에 자펀드별 수익률*도 공시하여 경쟁 촉진

* 다만,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신규자금 투자 등을 고려시 초기 펀드수익률은 낮을 수 있음

3. 핵심운용인력 인센티브 확대 유도

□ 자펀드 선정 시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* 심사**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핵심운용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운용책임 제고

*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개인별 성과보수 지급방안 및 인센티브

** 현재도 관련 항목을 제출받아 심사중 →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기준 마련